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4·27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사와 세계사적 사건

2018년 4월 27일(금), 모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보는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의미 부여도 다를 수 있다.

나는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공부하여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에서 통일문제에 관하여 논문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인 물자 지원단장으로 진남포와 평양도 방문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개성공단 등을 나무심기 등을로 수차례 주최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의 통일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는 남북문제, 통일문제의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에 관하여 나의 소견을 간략하게 간추려 볼까 한다.

첫째, 북측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것은 1945년 해방 후 처음이다. 73년 만의 역사적인 일이다. 그래서 전 민족과 전 세계의 관심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 기자들만 해도 41개국에서 2

천 8백여 명이 온다고 하니, 가히 평창동계올림픽에 맞먹는 세계사적인 사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외국 문물과 시대 흐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회담 때 내놓아야 할 보따리인 핵 실험 포기과 종계리 핵실험장 폐쇄 라는 통 큰 결단을 회담 전에 내놓고 있다.

뛰니 뛰니 해도 김 위원장의 방문(訪南)은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직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대사(大使)를 교환하는 평화체제도 아니고, 전쟁을 잠시 쉬고 있고 정지하고 있는 휴전협정(休戰協定)·정전협정(停戰協定)에서 적성(敵性)국가나 다름없는 상대방 국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상호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함수이다.

둘째,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1998년 2월에 취임한 김 대통령의 임기 3년 차에 성사되었다. 2007년 10월 4

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은 2008년 2월 취임하여 2008년 2월 퇴임을 5개월 남겨둔 임기에 이루어졌다.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노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으로 수난을 당하고 햇볕정책과 6·15 정상회담의 많은 관계자가 구속되고 처벌 받는 수난을 받았다.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김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다짐했으나 임기 말여서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5년과 박근혜 대통령 4년의 9년 보수정권 통일정책은 한 마디로 북한 붕괴론에 바탕을 둔 고립 제재와 압박 대결 정책이었다. 비핵화(非核化)에만 목을 맨 반(反)통일과 통일 역행적인 길로 접주했다. 비핵화도 성과를 못내고, 북한이 체제 유지와 체제 보장을 위하여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고 완성했다고 선언하는 시간을 보수정권이 주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은 2017년 5월 9일 선거에서 승리하고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임기 1년 안에 이루어지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성과를 거두고 상호 신뢰를 쌓게 되면 정상회담이 해마다 열리는 연례행사(年例

行事)가 될 수도 있다. 남북 간에 모든 회담과 직통 전화 등 연락 수단이 끊겼던 지난 보수정권과는 달리 지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직통전화를 개설하여 두 정상 회담 전에 직접 인사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셋째,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올해 신년 초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자기 책상 위의 핵무기 발사 단추가 더 크다고 하면서 서로 위협하고 서로 비방했다. 한 반도의 전쟁 먹구름이 언제 걸릴지 모두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이제 오는 6월에 북·미 정상이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만나기 위해서 회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우리네 인생도 변화무쌍하지만, 정지도, 세상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급변하고 있다.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적이고 흥미진진하기도 하다. 73년 간 분단과 전쟁, 독재와 가난을 피와 땀과 눈물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여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우리 민족, 오늘의 한반도, 오늘의 우리 운명을 만들어 내고 역사적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북이 회담 협력하고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하면서 평화 통일을 이룬다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승리요 영광이며, 축복이다. 시련과 고난에 찬 5천년 민족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빛나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우리가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5천만 국민들이여, 8천만 민족이여, 우리 모두 깨어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원하고 화해하고 단결 행동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꿈에도 소원인 통일, 평화통일을 이루자!

社說

‘자살률’ 불명에 떨쳐내야

우리나라에서 40분마다 1명씩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살로 숨진 사람은 1만3천92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에 달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자살률 12.1명과 비교하면 2.4배 높다.

OECD 국가 자살률은 1985년 17.1명에서 2015년 12.1명으로 줄었으나 우리나라만 11.2명에서 20명 이상으로 유일하게 늘었다. 연령대별 자살률은 80대 이상 78.1명, 70대 54.0명, 60대 34.6명, 50대 32.5명이며 30대와 40대는 24.6명과 29.6명으로 집계됐다.

20대는 16.4명, 10대도 4.9명이 나 됐다.

노인 자살률은 53.3명으로 전체 자살률의 2배 이상, OECD 국가 노인의 자살률(18.4명)의 3배 수준이다. 남성 자살률은 36.2명으로

여성 15.0명에 비해 2.4배 높았다.

자살자 수는 50대와 40대가 2천777명과 2천579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40.1%를 차지했다.

30대 1천857명을 더하면 7천113명이나 돼 사회나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청장년층이 스스로 생을 접었다. 10대와 20대 자살자도 273명과 1천97명이나 됐다. 자살은 악성종양,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주요 사망 원인 5위를 차지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청소년과 청년층은 병사나 자연사가 아닌 외인의 질한(46.4%)이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자살이 2.5배나 높았다.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6,355억원으로 압(14조원) 다음으로 많았다.

정부는 자살예방체계 등의 구축으로 높은 자살률의 불명예를 떨쳐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尺璧非寶

寸璧非寶

尺璧非寶

▷ 뜻: 지름이 한 자나 되는 보옥(寶玉)도 시간(時間)에 비하면 보배라고 할 수 없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지진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017년 11월 포항에서 다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점에 또 다시 강한 지진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럼 지진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먼저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이후 흔들림이 멈추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출입문을 개방해 두어야 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 발생 시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운동장 등과 같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여 한다.

이 밖에 각종 재난 시 대응요령과 우리 지역 대피소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은 우리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이 같은 문제에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두언 /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details.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happiness.